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라틴아메리카의 식량 주권운동: 식량 주권, 농생태학, 대중소농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조영지

1. 들어가며

멀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먹거리를 생산하고, 손질하고, 요리하고, 또 섭취하기에 이르는 과정은 일상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 부문은 그 자체의 특수성 때문이든, 공익적인 이유 때문이든 오랫동안 상품 사슬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클로펜버그 2007). 그러나 농업이 산업화의 수단이 되고, 이를 넘어 농식품 부문이 산업화되면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한 체화된 경험은 일상 밖으로 밀려나갔다. 오롯이 상품이 된 먹거리는 오감을 동원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데 성공했다. 알록달록 슈퍼에 예쁘게 진열된 과일, 나초칩 씹히는 소리, TV 채널만 돌리면 나오는 ‘먹방’에 이르기까지 상품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해 소비를 유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상품의 모습으로 소비자 앞에 등장하기까지 어떤 공간과 어떤 손길을 거쳐 왔는지 무감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먹거리는 고도로 감각화되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때보다도 추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적 변화의 중심에는 먹거리 상품 사슬이 한층 뿌리 깊게 상품화가 되는 과정이 있다. 물론 오늘날 그 상품 사슬은 국가라는 경계에 크게 제약 받지 않으며 전 세계를 넘나들며 뻗어있다. 맥마이클은 세

계화 프로젝트의 확장으로 3차식량체제가 형성되었다고 지적한다(McMichael 2009). 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임무를 떠맡던 국민 국가의 역할은 미약해졌으며, 이제 식량안보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담론에 맞춰서 민영화된다. 기업식량체제



전지구적 소농 운동체인 비아캄페시나 (출처: <http://foodsecurity.uchicago.edu>)

를 새로운 체제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날 먹거리 사슬이 초국적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농산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착 지식, 삶, 땅, 문화는 강탈되고 추방되기 때문에, 세계농업의 경로와 식량 주권의 정치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한다(McMichael 2005). 소농은 세계농산물 시장의 저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임노동자가 되며, 근원 없는 먹거리에 노출된 소비자는 각종 질병과 비만 문제에 노출된다(켈롤란 2013).

식량 주권의 정치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북반구와 남반구,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자본의 폭력은 전 세계의 빈민과 약자에게 가해졌지만, 흥미롭게도 운동으로서 식량 주권 논의와 실천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 이유는 라틴아메리카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으로 인해 세계 어느 곳보다 지독한 고통으로 신음한 곳이기도 하지만(이성형 2009), 그에 훨씬 앞서서 5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요된 식민성과 근대성의 역사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투쟁하며 해방의 길과 대안을 모색해온 경험이 있다는 데 있다(미놀로 2010).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식량 주권 운동의 큰 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량 주권 논의가 등장한 맥락과 운동의 조직화 과정을 다루고, 실천적 대안으로서 농생태학 논의, 농민 대 농민 방법론을 소개한다. 또한 서구중심주의적 페미니즘 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대중소농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라틴아메리카의 식량 주권운동과 세계 농업에 대항하는 소농의 조직화

초국적 기업에 의해 작동되는 수출지향적 대규모 단작 농업은 소규모 먹거리 생산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 지역 중심적이고 전통적인 지식,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의 건강, 식량보장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적 먹거리 체계에 저항하는 운동은 단순히 농장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의 소농, 중소규모 농민, 무토지농민, 여성 농민, 원주민, 이주민, 농업 노동자, 시민사회, 소비자 진영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이제는 식량 주권’(Soberanía alimentaria ya)이라는 외침으로 압축될 수 있다.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주권으로서 이야기하는 식량 주권 논의는, 국가적으로 충분하게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데스마레이즈 2011). 식량 주권 운동은 전지구적 소농 운동체인 비아캄페시나(Vía Campesina)에 의해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되었다. 비아캄페시나에 따르면, 식량 주권은 “지속 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이자, 민중이 자신의 농업 및 먹거리 정책을 규정할 권리”이며, “땅, 영토, 수자원, 종자, 가축, 생물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는 기업 부문이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의 손에 있다”고 강조한다(La Vía Campesina 2016).

2007년 2월 말리의 세렝게에서 열린 식량 주권 포럼에서는 80개국의 500여명의 대표단이 니엘레니(Nyéléni) 선언을 하고 초국적 식량 주권 운동의 결의를 다졌다. 특히 기업식량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여성과 원주민의 지식과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밝히고, 억압과 불평등을 타파하고자 한다. 또한 로컬 및 국가 단위의 경제와 시장을 우선시하지만, 경제의 세계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소규모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투명한 무역을 지향한다(Nyéléni 2007).

한편 식량 주권 논의와 비아캄페시나의 기원은 1990년대 초 중남미에서 조직된 라틴아메리카농촌단체연합(CLOC: Coordinadora Latinoamericana de Organizaciones del Campo)에서 찾을 수 있다(Martínez-Torrez and Rosset



2016년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니엘레니 유럽 포럼에서 600명의 대표단은 기업의 착취를 방지하고 초국가적인 기업을 제안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를 촉구했다. (출처: <http://nyelenieurope.net>)

2010). 식민주의적 팽창 속에서도, 개발 프로젝트 속에서도 소농의 농업과 삶은 끊임없이 잠식되고 역사적 잔여물로 치부되어 왔지만, 80년대 외채 위기 이후에 생겨난 대대적인 변화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 계약마저 저버리게 하고 식량안보를 민영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농업의 대두는 주변부와 중심부 간의 인종주의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McMichael 2005).

전 지구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첫 번째 신호탄을 날렸으며, 그 결과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했다.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조합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농촌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제도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멕시코의 제도혁명당(PRI)은 70년대에 접어들며 경영계 권력의 성장과 외국자본의 침투로 동요했고, 대대적 민영화와 농업 부문을 포함한 시장 개방을 단행했고(Harvey 2005),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농과의 경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 비공식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조영지 2015). 초국적 기업은 먹거리 시장을 독점적으로 잠식해 의도적인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데, 2008년 식량 위기 역시 이러한 힘이 개입하고 있었다(Rosset 2009).

라틴아메리카의 중소규모 농업 생산자, 원주민, 소농, 농업 노동자는 이러한 기업 중심의 먹거리 체계 개편에 대해 1980년대 초부터 아래로부터의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유사한 자본의 폭력을 겪고 있는 소농이 결집해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Martínez-Torrez and Rosset 2010). 1981년 마나과에서 ‘농업개혁과 소농운동에 관한 대륙회의’(CCARPM: Continental Conference on Agrarian Reform and Peasant Movement)가 열렸으며 다양한 농민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또한 콜럼버스가 라틴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지 5세기를 맞아 ‘500년의 원주민 저항’(500 Years of Indian Resistance) 운동을 조직하고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정체성을 다지며 식민성이 가져온 배제와 불평등에 대해 공동 투쟁 목표를 설정했다. 그 결과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라틴아메리카농촌단체연합(CLOC)으로, 1991년과 1992년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농민 단체가 함께 모여 신자유주의 모델을 적으로 규정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공통의 정체성을 가짐에도 역사적 분기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단결하기 어려웠던 5개 지역 19개국 47개 소농, 원주민, 농촌 노동자, 농촌여성 단체가 초국적 농민운동체를 만든 것이다.

비슷한 시기 라틴아메리카 외에도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초국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1992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북미, 유럽에서 온 소농이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만나 비아캄페시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Martínez-Torrez and Rosset 2010). 이에 1993년 5월 전세계의 농민지도자가 벨기에의 몽스에서 모여 첫 번째 비아캄페시나 국제회의를 열고(데스마레이즈 2011) 지속적으로 규모와 내실을 다져나갔다. 2013년 자카르타 총회를 기준으로 비아캄페시나에는 전 세계 9개 지역 73개국 164개 소농, 중소규모 농민, 무토지농민, 여성 농민, 원주민, 이주민, 농업 노동자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La Vía Campesina 2016).

3. 대안과 실천으로서 농생태학과 농민 대 농민 농생태학운동(MACAC)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자 실천으로서 농생태학(agroecología)은 운동차원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대두되었다. 2011년 11월 비아캄페시나는 태국 수린(Surin)에 모여 농생태학과 종자에 관한 제1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세렝게에 다시 모여 국제 농생태학 포럼을 개최했다. 물론 ‘하향식이 아닌 농민의 지식과 실험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지식집약적 기술’(Altieri and Toldedo 2011)이란 의미에서 농생태학은 꼭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는 과학이자, 운동, 실천으로서 농생태학에 주목하고 있다(Rosset and Martínez-Torrez 2012).

오늘날의 농업을 두 축으로 놓고 보면, 한 축에는 높은 수준의 투입물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출지향적 산업적 농업이 있고, 반대 축에는 소농에 의한 농생태학적 농업이 있다고 볼 수 있다(Altieri and Toldedo 2011). 농생태학은 1)높은 수준의 종 다양성, 2)토착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 생태계 관리, 3)다양화된 농업 체계, 4)다양한 재해나 변화에 저항력을 갖춘 농업 생태계, 5)토착 지식과 농민에 의한 혁신 6)공동체 중심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Altieri, Funes-Monzote, and Petersen 2012). 농생태학은 각종 국가 중심의 개발 사업과 달리 하향식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농민이 주체가 되어 끊임없이 전통적 지식과 새로운 시도 간의 변증법적 혁신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오늘날의 인류가 당면한 먹거리,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공동체의 회복을 중심에 놓는다.

방대한 대륙에 걸쳐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농업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완전한 소농 기반의 농업을 0, 산업 농업을 9로 놓고 보았을 때, 다양한 수준의 농업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Altieri and Toldedo 2011). 다행히도 아직까지 공동체 기반의 전통적 농업이 많은 사회에서 먹거리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류세(Anthropocene)에서 대안적 먹거리 생산 모델로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자와 통합적 농업을 지켜나가는 활동은 소농의 삶과 공동체 문화

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도 대규모 단작보다 뛰어나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Altieri, Funes-Monzote, and Peterse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농민 간의 다양한 농생태학적 시도와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협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농생태학 연구회(Sociedad Científica Latinoamericana de Agroecología)는 지난 20년간 라틴아메리카에 사 논의한 농생태학에 근거를 두고 2007년 콜롬비아의 메데인 회의에서 결성되었다. 다양하고 유연한 팀을 조직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가 당면한 여러 문제(기후변화, 생명공학과 바이오 디젤 작물의 등장, 세계화와 자유 무역협정, 식량 주권)에 관해 분석, 연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OCLA 2016).

한편 1990년 말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며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쿠바에서는 초국적 식량 체제와 식량 위기에 맞서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 시도했다(Rosset 2009). 이른바 ‘핑크타이드’의 물결 속에서 안데스 국가는 식량 주권 논의를 헌법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전환하기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확장하고, 식량안보에 주요한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적인 농업을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석유 연료 투입이 높은 생산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환의 시도 역시 싹을 틔우고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는 2005년 비아캄페시나와 협약을 맺고 파울루 프레이리 라틴아메리카대학교 농생태학 연구소(IALA-PF: Instituto Universitario Latinoamericano de Agroecología Paulo Freire)의 토대를 마련했다(IALA-PF 2016). 이 기관은 라틴아메리카의 청년 농촌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생태학과 관련한 교육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쿠바의 농생태학 운동은 현장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cCune, Reardon, and Rosset 2014).

사탕수수 재배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진 쿠바에서는 식민지 시기부터 대농장 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혁명 정부 역시 생산 다각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소비에트 중심의 무역 블록인 경제상호



쿠바의 농생태학과 농민 대 농민 농생태학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소농 멀티미디어 학교 페이지
(출처: <http://agroecologia.espora.org>)

원조회의(CMEA)에 가입함으로써 산업적 설탕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Scarpaci and Portela 2009). 특히 소련이 무너지고 1991년 ‘비상시기’(período especial)가 시작되자, 쿠바는 높은 수준의 투입재 없이 식량 자급과 식량 주권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다양한 농생태학 운동이 대두되었지만, 가장 방대하면서도 근본적인 전환의 움직임은 전국 소규모농업생산자연합(ANAP: Asociación Nacional de Agricultores Pequeños)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쿠바 소규모 독립 생산자의 절반가량인 10만 가구를 아우르는 농업 혁명으로, 산업적, 상업적 투입물이 없는 생산의 다각화를 지향한다(Altieri and Toldedo 2011). 특히 농민 대 농민이라는 방법론에 기초해 지난 20년간 농생태학을 전파시킨 결과, 전 국토의 25% 면적에서 국내 먹거리의 6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Rosset et al. 2011). 아직 산업적 농업과 플랜테이션 생산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풀뿌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농생태학과 관련한 실험을 이어나가고,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농생태학이 확장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으로서 농민 대 농민 농생태학 운동(MACAC: Movimiento Agroecológico Campesino

a Campesino)을 꼽을 수 있다(Altieri, Funes-Monzote, and Petersen 2012). 이는 ‘직접 보면 믿게 된다’라는 기치 하에서 현장에서 농민이 중심이 되어 암묵지(tacit knowledge)와 체화된(embodied) 앎을 소통하고 교육한다(Rosset et al. 2011). 농민을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관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과 달리, 이 운동의 의사소통 방식은 수평적이고, 참여자 모두가 학습자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쿠바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만, 농민 대 농민 방법론은 과테말라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중앙아메리카로 확장되었다. 이는 파울루 프레이리식의 민중해방 교육과 수평적 의사소통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소농의 페다고지’라고 할 수 있다(Holt-Giménez 2006). 농생태학의 효과를 공동체의 소농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농생태학적 실천 사례가 있는 동료 농민(campesino-promotor)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단적인 지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도입하거나 혁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Rosset and Martínez-Torrez 2012).

4. 대중소농페미니즘(EI feminismo campesino y popular)

또 한 가지 식량 주권 운동에서 중시되는 요소는 자본주의가 동반한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농촌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발전과 개발의 프레임 하에서 가치절하되었던 여성의 노동과 지식체계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여성농민은 농업 생산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목소리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농민 운동 진영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장소를 불문하고 비일비재한데, 비아캄페시나 역시 그 출발 시기의 경우 예외는 아니었다. 창립 초기에는 여성 농민 지도자가 부재하다시피 했고, 여성에 권리나 성 평등에 관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데스마레이즈 2011). 여성농민지도자를 육성하고 젠더 간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비아캄페시나는 여성을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서 여성 총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

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경우 반드시 남성, 여성 농민 지도자를 각 한 명씩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아캄페시나의 성 평등과 여성 역할에 대한 보장은 많은 부분 라틴아메리카농촌단체연합에서 본 따온 것이다. 진보적 대안 사회 운동 속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흔히 살펴볼 수 있는데, 라틴아메리카 농민 운동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Garcia Forés 2014). 직접적으로 여성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여성에게 특정한 젠더 역할을 기대하고 특정한 임무, 특히 재생산과 관련한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조직 내에서도 여성은 가사 노동이나 재생산과 관련한 일들로 인해 남성 지도자만큼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힘들며,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성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여성을 가부장적 틀 속에 다시 위치시키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농촌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한다.

- ▶ 농촌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 폭력, 특히 여성 살해.
- ▶ 빈곤과 강요된 이주의 여성화.
- ▶ 조직 및 공적 권력의 지도부 참여 제한과 대표선임 제한.
- ▶ 자원, 특히 토지와 신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부족.
- ▶ 여성의 기여와 지식, 특히 씨앗 보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 농촌 여성에 대한 과잉 착취. 특히 농업 노동에서 임금 차별.

위의 과제는 서구 여성이 당면한 어려움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식민성과 계급성이 가져오는 다중적 억압에 관한 특수성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서구 중심적 페미니즘은 다양한 여성이 처한 상이한 종류의 폭력을 고려하지 못하며, 젠더, 인종, 문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CLOC 내에서도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보거나, 이러한 운동이 전통적인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다고 오해하여 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페미니즘 논의가 여성에게 해방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Garcia Forés

2014).

식량 주권 운동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눈감지 않으면서도 문화의 균일성이 상정하는 또 다른 차원의 폭력을 경계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소농 여성들은 대중소농페미니즘(*El feminismo campesino y popular*)을 주창한다. 특수성과 다양성을 접합시키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의 식량 주권 운동에 있어 여성을 2인자가 아니라 주체로 위치시키려는 노력은 “페미니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Sin feminism, no hay socialism*)”는 외침으로 울려 퍼진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 라틴아메리카의 식량 주권 운동, 농생태학적 전환, 대중소농페미니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는 운이 좋게도 지난 1년간 비아캄페시나 회의에서 통역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었고, 이러한 논의가 농민의 입을 통해서 직접 생산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필자는 토마토 하나 제대로 키울 줄 모르고, 겨울을 나야지만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도 이들의 이야기와 열정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되고 가슴이 벅차 오르곤 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라틴아메리카가 단순히 개발의 대상 내지는 돈벌이의 수단, 혹은 이국적인 열정의 대륙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실천과 수평적인 학습 과정이 우리 사회와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006년 쿠바 농생태학 연수를 통해 농민 대 농민 농생태학 운동의 현장을 체험하며 초국적 식량체제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의 상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한 여성 농민은 자연을 어머니 대지, 파차마마로 신성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마저도 자연과의 유대를 잃어버린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체화된 경

힘은 현재 한국 여성 농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식량 주권 운동과 토종종자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현재 여성 농민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반대로, 일찍이 대중 농민 여성이 일찍이 조직화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성 농민에게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또한 ‘언니네텃밭’과 같은 공동체지원농업(CSA)의 성공적 사례 역시 식량 주권의 실천이 가능한 시장에 대해 전 세계적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점에 있어 식량 주권 운동은 한국 사회와 라틴아메리카가 상호적이고 수평적이며 대안적인 근대성을 만들어 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쟁을 세계화하라, 희망을 세계화하라!(¡Globalicemos la lucha, globalicemos la esperanza!)

참고문헌

- 이성형, 2009,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서울: 그린비.
- 조영지, 2015, *Geography, Gender, and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 Case Study of Street Vending in San Cristóbal De Las Casas, Mexico*.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 미놀로, 윌터. 2010.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김은중 역, 서울: 그린비.
- 캐롤란, 마이클. 2013,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 김철규 외 역. 서울: 파비.
- 데스마레이즈, 아네트 아우렐리. 2011, 『비아캄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 박신규 외 역. 서울: 한티재.
- 클로펜버그, 잭. 2007. 『농업생명공학의 정치경제』. 허남혁 역. 서울: 나남.
- Altieri, M. A., Funes-Monzote, F. R., & Petersen, P. (2012). “Agroecologically efficient agricultural systems for smallholder farmers: contributions to food sovereignty”. *Agr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2(1), 1-13.
- Altieri, M. A., & Toledo, V. M. (2011). “The agroecological revolution in Latin America: rescuing nature, ensuring food sovereignty and empowering peasants”.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3), 587-612.
- Garcia Forés, E. (2014). “El feminismo campesino y popular de las mujeres de la

- coordinadora latinoamericana de organizaciones del campo”. In E. Siliprandi & G. P. Zuluaga (Eds.), *Género, agroecología y soberanía alimentaria*, Barcelona: Icaria editorial.
- Harvey, 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lt-Giménez, E. (2006). *Campesino a campesino: voices from Latin America's farmer to farmer movement for sustainable agriculture*. Oakland: Food First Books
- Martinez-Torres, M. E., & Rosset, P. M. (2010). “La Via Campesina: the birth and evolution of a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1), 149-175.
- McCune, N., Reardon, J., & Rosset, P. (2014). “Agroecological formación in rural social movements”. *Radical Teacher*, (98), 31.
- McMichael, P. (2005). “Global development and the corporate food regime”. *Research in rural sociology and development*, 11, 265-299.
- McMichael, P. (2009). “A food regime genealog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6(1), 139-169.
- Rosset, P. (2009). “Food sovereignty in Latin America: confronting the ‘new’ crisi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2(3), 16-21.
- Rosset, P. M., Machin Sosa, B., Roque Jaime, A. M., & Ávila Lozano, D. R. (2011). “The Campesino-to-Campesino agroecology movement of ANAP in Cuba: social process methodology in the construction of sustainable peasant agriculture and food sovereignty”.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 161-191.
- Rosset, P. M., & Martínez-Torres, M. E. (2012). “Rural social movements and agroecology: context, theory, and process”. *Ecology and society*, 17(3), 17.
- Scarpaci, J. L., & Portela, A. H. (2009). *Cuban Landscapes: Heritage, Memory, and Pla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scuela Campesina Multimedia. (2015). <http://agroecologia.espora.org/2015>
- IALA-PF. (2016). <http://ialainfo.blogspot.kr/>
- La Vía Campesina. (2016). <https://viacampesina.org/en>.
- Nyéléni. (2007). Declaration of Nyéléni. <https://nyeleni.org/spip.php?article290>.